

전주시, 'AI 선도도시' 구현 집중

AI 추진위원회 출범·조례 제정·전담조직 구축 등 체계·기반 확보로 도약 준비 마쳐

전주시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대비해 대한민국과 글로벌 산업을 이끌어갈 AI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시는 AI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제도, 실행 조직을 갖추고 AI 선도도시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시는 AI 기술 확산과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AI 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기반 구축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먼저 시는 지난해 7월 'AI산업팀'을 신설한 데 이어 올해 1월 '피지컬AI TF팀'을 추가로 구성하는 등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전담조직도 단계적으로 갖춰왔다.

이를 통해 시는 피지컬 AI 관련 공모 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활

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AI 산업 육성과 활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닦았다.

뿐만 아니라 시는 지난해 10월 전주시 AI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유관기관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전주 AI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전주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공지능(AI) 추진위원회도 출범시키는 등 산·학·연·관 전문가 총 20명으로 구성된 협력체제도 구축했다.

추진위원회는 정책 방향과 기업들의 AI 전환에 대한 자문 등 AI 관련 정책의 콘트론타워 역할을 수행 중이다.

동시에 시는 조직 내부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12일 간부 공무원 대상 '리더를 위한 피지컬AI' 특강을 진행하는 등 조직 전반의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여기에 시는 오는 29일에는 전주시

정연구원과 함께 '전주, 후백제 왕도에서 AI도시로의 도약'을 주제로 한 정책포럼을 통해 전주의 역사적 가치와 AI 대전환 시대의 미래 도시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9월 전북특별자치도·전북대학교와 함께 '피지컬AI 선도모듈 수업 및 기술검증(PC) 사업'에 참여해 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피지컬 AI 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또 국가공모사업인 AI 신뢰성 혁신 허브센터 구축 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AI 기술의 안정성·신뢰성·품질에 대한 평가·인증 기반을 지역에 마련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AI 전환을 가속화하고 경쟁력도 높일 계획이다.

여기에 시민 체질형 과화 문화 확산을 위한 'AI 미래모빌리티 국립전문과 학관' 건립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시는 올해 국가예산으로 과학기술정

보통신부 타당성 용역비 5억 원이 편성돼 유지 준비에 탄력이 붙은 만큼, 시민들이 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시는 오는 2030년까지 옛 전주종합경기장 부지(G-Town)에 'AI 가상융합 미래기술 실증혁신센터'를 조성해 도전력, 가상과 현실을 잇는 실증환경과 AI 스튜디오를 구축해 AI 기술과 시민의 일상을 긴밀히 연결하는 생태계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인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전주시는 산·학·연 협력체계와 제도, 전담조직을 기반으로 AI를 산업 전반에 확산·적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해 왔다"면서 "전주를 피지컬 AI 실증 확산의 거점으로 육성해 관련 산업을 선도하고, 기술의 혜택이 모든 시민의 일상에 스며드는 'AI 선도도시'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재가의료급여사례관리선정 지원

전주시 덕진구, 장기입원 감소·수급자 자립생활 유지 등 성과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이기섭)는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재가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재가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의료지원 필요가 낮은 장기 입원 의료급여수급자가 퇴원 후에도 지역사회와 가정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식사지원, 이동지원, 돌봄 지원, 의료·복지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장기입원으로 발생하는 의료비를 절감하고, 수급자의 자립생활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실제 사례로 김모(66) 씨는 2023년부터 장기입원을 이어오던 대상자로 당뇨병 외에 특별한 질환이 없음에도 병원을 주소지로 두고 장기간 입원 생활을 지속해 온 경우였다.

덕진구 생활복지과는 2025년 6월 김 모씨를 재가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하고, 지속적인 방문상담과

함께 △매입입대주택 △생활가전 지원 △도시락지원 △이동비지원 △문화·여가 생활 지원 등을 제공했다.

그 결과 김 모씨는 2025년 6월 퇴원 이후 현재까지 7개월 이상 스스로 재가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덕진구는 2025년 재가의료급여 대상자 36명을 선정해 퇴원 전부터 퇴원후 1년간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의료비 분석 결과 수급자 1인당 연 평균 약 2천만원의 의료급여가 감소했으며, 이를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7억2천만원 상당의 의료급여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덕진구는 재가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장기입원 감소, 의료급여 예산 절감, 수급자의 자립생활 유지라는 세 가지 성과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대상자 확대를 통해 사업 효과를 지속 높여나갈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농기센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대상자 공개 모집

전주시가 올해도 미래 전주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을 집중 육성기로 했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는 오는 2월 1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인 '농업e지' (www.nongueze.go.kr)를 통해 '2026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대상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업에 뜻을 둔 예비·초기 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만 50세 미만인면서,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자이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농지 구입 △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등 농업경영 기반 조성을 위해 최대 5억 원 이내의 정책자금 지원된다.

융자 조건은 연 1.5%의 고정금리로, 5년 거치 후 20년간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이 적용돼 영농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농업e지에 접속해 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관련 증명서류를 등록해 접수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이후 서면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덕진 만든다

전주시 덕진구, 신년브리핑 규정 운영 5대 추진 목표 제시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이기섭)가 2026년 새해를 맞아 시민 편의 증진과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구는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덕진구를 만들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되는 녹색도시를 조성하는 일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기섭 덕진구청장은 27일 덕진구청 신년브리핑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덕진'을 목표로 한 2026년도 규정 운영 5대 추진 목표를 제시했다.

5대 추진 목표는 △공감하고 소통하는 '열린행정' △나눔, 배려로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행정'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행정' △사람과 자연이 조화되는 '녹색행정' △지역경제 회복을 넘어 미래 도약을 위한 '활력행정'이다.

먼저 구는 공감하고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사업을 적극 추진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는 △고충 민원 및 시민 불편 사항 신속 접수·처리 △주민과 소통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1



이기섭 덕진구청장은 27일 덕진구청 신년브리핑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덕진'을 목표로 한 2026년도 규정 운영 5대 추진 목표를 제시했다.

주민자치센터 1특화사업 추진 △덕진 동 주민센터 주차장 사유지 점유토지 매입 △인후1동·인후2동·우이동·금암동·송천1동 주민센터 노후시설 정비 △외국인 혼인신고 시 전주시 흥보책자 증정 △지역적재조사사업을 통한 새로운 디지털공부 구축 등을 추진한다.

구는 또 나눔과 배려로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행정을 목표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촘촘한 복지행정 구현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 제공기로 했다. /권희성 기자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로 복지급여 대상자 확대 △긴급복지지원 기준 완화 및 지원금 인상 △전북형긴급복지지원제도 시행으로 중위소득 75~85% 구간 위기가정 추가 지원 △이웃사랑 나눔창구 운영을 통한 소외이웃돕기 연계 등으로 저소득·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한다.

동시에 구는 건강한 보육환경과 노인 복지환경을 조성해 취약계층은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소외받지 않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기준 중위소득 상향으로 복지 혜택 대상 확대

2026년 새해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되면서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대상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

전주시는 올해 복지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특히 1인 가구의 중위소득도 7.20% 인상된 월 256만 4238원으로 결정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도 일제히 상향된다. /권희성 기자

구체적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살펴보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로 월 207만8316원 △의료급여는 40% 이하 259만7895원 △주거급여는 48% 이하 311만7474원 △교육급여는 50% 이하 324만7369원까지 확대된다.

이는 2025년 대비 각각 4% 월 최대 약 20만 원까지 상향된 수준이다.

또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됐던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급여 중지 가구에 대한 재조사와 신규 대상자 발굴이 가능해졌으며, 전주지역에서는 약 900가구가 추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의회, 전주향교 전·현직 주요 인사들과 간담회 거처

전주시의회는 27일 전주향교 전·현직 주요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통 유교문화 계승과 지역사회에서 향교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관우 의장, 최주만 부의장과 전주향교 제31대 강성수 전교와 제19대 유도회 최귀호 회장이 참석해 전주향교의 운영 현황과 전통

문화 보존,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남관우 의장은 "전주향교는 전주의 역사와 정신을 지켜온 소중한 문화 자산"이라며 "전통이 현재와 만나 시민 삶 속에서 살아 숨 쉬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소통하겠다"고 화답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